

중국의 영향과 동남아의 대응: 상호적 접근시각*

박 사 명**

I. 서론

20세기 중반 동남아를 엄습하는 '중국위협론'의 한랭전선이 21세기 초반 '중국기회론'의 온난전선에 밀려나고 있다. 2008년 일본외무성의 해외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 국가의 국민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중요한 협력동반 국가'로서 일본에 비하여 중국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978년 이후 거의 5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줄곧 일본에 압도되던 중국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하는 사태는 일본의 정부와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제공한다(MOFA 2008). 이제 동남아에 대한 '위협'에서 '기회'로 반전되어 가는 중국의 새로운 위상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미래에 대해서도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이다(NRF-2008-362-B00018). 이 논문에 대한 토론과 심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남아의 영향' 아닌 '중국의 영향'을 부각하는 이 연구의 기본적 편향은 위 사업의 총괄적 주제가 "동남아시아의 역사적·문화적 구성: 외부의 영향과 현지화"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히면서 토론자와 심사자의 두루 유익한 조언에 감사한다.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mpark@kangwon.ac.kr

중요한 함의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급속하게 전개되는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중국과 동남아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중국의 압도적 규모, 역사, 인구, 국력 등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비대칭성 때문에 과거의 사실, 현재의 동향, 미래의 전망 등에 대한 접근시각의 초점이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자율성(autonomy)부터 타율성(dependence)까지 광범한 스펙트럼에 분포한다(Smail 1961; Benda 1965; Emmerson 1980; 유인선 1995; Lysa 1996; Stuart-Fox 2003; Acharya 2004; Womack 2006; Ho K. 2007; Kang 2007; 賽代斯 2008). 특히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풍미하는 현실주의(realism)는 일반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영향을 부각하는 중국중심적 편향이 심각하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경험하는 실패가 입증하는 바와 같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상호작용에 동원되는 물질적·관념적 자원의 비대칭적 배분구조가 구체적 상황 및 구체적 사안과 무관하게 언제나 강대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치자원의 유사한 배분구조에서도 역동적 정치과정은 지극히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타율사관’과 ‘자율사관’은 각각 동남아 각지의 식민화와 탈식민화를 위한 응분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와 지역화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에 직면한다. 역사적으로 중국, 인도, 중동, 서구, 일본 등의 외부적 영향이 끊임없이 부침하는 과정에서 동남아는 다양한 범위와 수준의 상대적 자율성을 체현한다.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국의 경우 그 지정학적(geopolitical), 지경학적(geo-economic), 지문화적(geocultural) 위상의 중요성 때문에 동남아에 대한 일방적 영향이 더욱 부각된다. 그러나 중국학계에서도 최근 동남아 연구의 자국중심적 편향에 대한 비판

이 다양하게 제기된다. ‘자아중심주의’(唐世平·張洁·曹筱陽 2005), ‘중국중심주의’(梁志明 2007; 梁英明 2008; 唐世平·綦大鵬 2008), ‘중국본위주의’(張秀明 2008), ‘중국중심성’(Ho K. 2007) 등으로 요약되는 자국중심적 접근시각을 탈피하여 중국과 동남아의 주체적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부상하는 것이다.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자율성과 타율성을 대조하는 정태적 접근시각을 넘어 복합적 상호의존에 주목하는 역동적 접근시각을 요구한다. 중국의 영향에는 중국의 주관적 의도와 부합하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주동적(active) 영향과 중국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간접적으로 파생하는 반사적(reactive) 영향이 혼재하며, 후자는 동남아의 대내적 변화와 대외적-중국에 대한-영향을 포함한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과 동남아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상호적(interactive)인 현상이다.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자율성과 타율성에 집착하는 양분법적 접근시각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역사적 현실을 간과하는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정태적인 한계를 드러낸다.¹⁾ 일반적으로 미시적 문제에 대한 초점은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단편적 현상을 부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거시적 문제에 대한 조망은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현상을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자율성부터 타율성까지 광범한 스펙트럼의 다양한 지점에서 전개되는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교호작용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긴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압도적 영향을 강조하는 식민시대의 ‘타율사관’과 동남아의 주체적 대응을 강조하는 탈식민화의 ‘자율사관’이 공유하는 일면적 접근시각을 넘어

1) 동남아 각국 가운데 중국의 각종 영향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베트남의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한 위상은 타율성에서 자율성까지 지극히 역동적으로 변화한다(Womack 2006: 240-52).

양자의 복합적 교호작용에 주목하는 상호적 접근시각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이다. 중국의 영향과 동남아의 대응은 전통시대의 중화주의, 식민시대의 민족주의, 냉전시대의 사회주의, 개방시대의 자본주의 등 주요한 역사적 계기를 통하여 대단히 역동적인 양상을 드러낸다.²⁾ 그러므로 이 연구는 심층적 사례연구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시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동남아의 자율성과 타율성에 대한 정태적 양분법을 타개하고 역동적 접근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은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가속되는 세계화와 지역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새로운 전망에도 긴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전통시대와 중화주의

전통시대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로서 기능하는 중화질서의 이념적 기초는 ‘천하주의(天下主義)’라는 중국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중화제국과 주변세력—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의 불평등한 화이관계(華夷關係)에 ‘사대자소(事大字小)’의 유교적 도덕관념이 투영되는 중화주의(中華主義, Sinocentrism)이다. 그것은 서구사회가 배태하는 근대적 제국주의에 대한 차별성을 내포하며,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의 교환이 상징하는 충성과 보호의 유교적 군신관계를 수반하는 비대칭적 상호의존의 불평등한 위계구조로 표현된다.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표상하는 ‘천하’에 대해서는 수

2) 이 연구가 중국의 영향을 동남아에 대한 유일한 외부적 영향으로 파악하고 인도, 중동, 유럽, 미국, 일본, 소련 등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영향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직적이고 일원적인 패권의 세계를 함축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과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조화의 세계를 지향한다는 이상주의적 시각이 대립한다(趙汀陽 2005; 張曙光 2006; 柯嵐安 2008). 그러나 이념적 차원이 아닌 역사적 현실에 있어서 ‘천하’가 패권적 세계에 더욱 친화적이라는 측면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이다.

1. 주동적 영향

동아시아의 중국중심적 지역질서 즉 중화질서의 형성과정은 동아시아 역외에서 조성되는 외부적 동인이 추동하는 해체과정과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역내에서 생성되는 내부적 동인에 의하여 주도된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최장의 수명을 과시하는 내생적 지역질서로서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광역적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역사적 원형이다(何芳川 1998). 중화질서는 ‘중화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로 인식되기도 하는바, 그것에 내재하는 지나친 중국중심적 접근시각의 문제가 심각하다(Fairbank 1968). 사실 중화질서는 ‘중화세계’의 모든 주변세력을 군사적·경제적으로 충분히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념적으로도 완전히 포섭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리적 관할의 범위와 기능적 통합의 수준에서 드러나는 엄연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화질서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역적 동아시아 차원에서 가장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지역질서로 평가된다.

중화질서는 동아시아의 내생적 지역질서로서 중국의 봉건적 지배구조가 대외적으로 투사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질서로 발전하며, 그러한 역사과정의 절정은 명대(明代, 1368-1644) 및 청대(清代, 1644-1911)이다(Wang 1992: 108-30; 何芳川 1998). 송대(宋代, 960-1279)까지는 중국과 흉노(匈奴), 몽골(蒙古), 거란(契丹), 여진

(女眞) 등 주변세력의 양자관계가 상호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라 조공관계에서 역조공관계까지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수반한다. 그러나 몽골 원조(元朝, 1271-1368)의 성립을 전후하여 한국(高麗, 1231-1259), 일본(1274, 1281), 베트남(安南, 1257, 1284, 1287), 미얀마(緬甸, 1277, 1287, 1300), 인도네시아(爪哇, 1293) 등에 대한 침략을 통하여 중화질서는 가장 폭력적이고 약탈적인 양상을 드러낸다(Stuart-Fox 2003: 52-72). 그러한 군사적 위협은 잠재적이든 현재적이든 불교와 회교의 확산이 대변하는 동남아의 탈중국적 정치변동과 무관하게 원조의 몰락 이후에도 중화질서의 구조적 기초로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³⁾

1368년 명조(明朝)에 이르면 중화질서의 지리적 외연과 기능적 내포가 최대화된다. 태조 홍무제(洪武帝, 1368-1398)는 서부 및 북부의 유목민족에 대해서는 철저한 군사적 대응을 강조하는 반면 동부 및 남부의 농경민족에 대해서는 평화적 관리를 역설한다(李雲泉 2004: 63). 성조 영락제(永樂帝, 1403-1424)도 각종 주변세력에 책봉과 조공을 회유하면서 조공보다 많은 회사(回賜)를 강조하는 경제적 ‘후왕박래(厚往薄來)’와 군사적 안전보장을 약속한다. 그러나 원대의 무단적 패도(霸道)와 대조되는 도덕적 왕도(王道)를 설파하는 명대에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군사적 무력수단이 동원된다(Johnson 1995; Stuart-Fox 2003: 73-94; Wade 2006). 그에 따라 운남(雲南)과 귀주(貴州)가 편입되고, 베트남이 점령되며(1404-1427), 한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Wang 1968; Wade 2006). 그러나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러한 중화질서의 완성만족 청조(淸朝)의 과업으로 이월된다(何芳川 2004). 북부(만주, 몽골) 및

3)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의 엘리트는 여전히 전통시대 중국의 동남아 각지에 대한 ‘중주권’을 강화하는 조공제도와 명대 정화(鄭和)의 해상원정을 ‘중국위협론’의 역사적 근거로 제시한다(Whiting 1997, 302).

서부(신강, 티베트)의 중국 편입에 따라 중화질서는 동부(동북아) 및 남부(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로 귀착되는 것이다.

중화질서의 문화이념적 기능을 부각하는 시각은 그 지리적 외연을 동북아 대륙권으로 최소화한다(Fairbank 1968; 費正清 2008). 그와 대조적으로 중화질서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시각은 그 지리적 외연을 중국의 모든 주변지역으로 최대화한다(濱下武志 1998: 25-38). 그러나 모든 지역질서는 정치군사적 강제, 경제사회적 보상, 문화이념적 동의 등 중층적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의 중원지역과 지리적으로 긴밀한 동북아 대륙권의 경우 중화질서의 정치군사적, 경제사회적, 문화이념적 기능이 모두 최대화된다. 그 가운데 한국(朝鮮)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바와 같이 조공관계의 ‘전형적’·‘본질적’ 사례라기보다 오히려 ‘유일한’ ‘예외적’ 사례로서 지극히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전해중 1986: 15-16; 李雲泉 2004: 134-49; Schwartz 1968; 孫衛國 2007). 그러나 중국의 남부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남아 반도권의 경우 중화질서의 모든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중국과 지리적으로 원격한 동남아 군도권의 경우 중화질서의 모든 기능이 최소화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전략적 필요에 따라 정치군사적 기능이 선택적으로 가동된다(Wade 2006; 孔遠志·鄭一鈞 2008).

그와 같이 동남아 각지에 대한 중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사회적, 문화이념적 영향은 상당히 불균등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말라카의 경우 그 전략적 위상 때문에 중화질서의 정치군사적 기능이 강조되거나, 태국의 경우 그 쌀에 대한 수요 때문에 중화질서의 경제사회적 기능이 강화된다. 따라서 단순한 교역을 위한 형식적 조공관계까지도 정치적 주종관계로 착각하는 중국의 자국중심적 ‘조공환각’(庄國土 2005)은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로서 중화질서의 정치군사적, 경제사회적, 문화이념적 기능이 시간적·공간적 조건에 따라

불균등하게 가동되는 역동성을 실증하는 현상이기도 한다. 그러한 중화질서의 지리적·기능적 구조는 중화질서가 전면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하는 아편전쟁(1840-1842) 이후에도 견지되는 중국의 중화주의적 관념구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국적 시각에 있어서 여전히 동남아 반도권은 중국의 군사적 안보에 긴요하고 동남아 군도권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바, 양자는 모두 중화질서의 필수적 일부로 인식되는 것이다(Reonard 2009).

2. 반사적 영향

중화주의의 영향은 동남아 각국의 중화질서에 대한 도전에서도 드러나는바, 동남아 각지의 지역질서로서 ‘소중화질서’를 관할하는 소수의 중심왕국은 모두 중국에 대한 조공관계를 이용하여 자국중심의 국지적 지역질서를 관리한다.⁴⁾ 예컨대 명대 마환(馬歡)의 『영해승람(瀛涯勝覽)』(1451)이나 청대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誌)』(1852)에서 동남아 반도권 및 군도권의 여러 중심왕국과 그 주변세력의 상호관계는 각 중심왕국의 국지적 세력권에서 운용되는 위계적 군신관계의 ‘소중화질서’로 인식된다(Reonard 2009: 41-54).⁵⁾ 베트남(安南), 미얀마(緬甸), 태국(暹羅), 인도네시아(爪哇) 등 동남아 각지 소조공체제의 중심왕국은 자국에 대한 종속적 지위를 수용하는 주변세력의 조공을 바탕으로 국지적 지역질서를 주재한다(Wyatt 1984: 56; Munoz 2006: 118-22, 176-78, 182-84, 196-98,

4) 만족(滿族)의 청조가 한족(漢族)의 명조를 대체하는 ‘화이변태(華夷變態)’에 저항하여 중화질서의 법통을 계승하는 ‘소중화’를 자임하는 조선과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의 다른 소지역질서에 있어서 ‘소중화질서’는 유교적 군신관계의 문화적 요소가 배제되는 단순한 정치적 세력관계의 표현이다(孫衛國 2007).

5) 그와 같은 ‘소중화질서’의 근본적 성격에 있어서 일정하게 제도화된 위계구조인 중화질서와는 대조적으로 동남아 각지의 소지역질서는 지배자들 사이의 개인적 권력 관계에 기초한다(Wyatt 1984: 56).

280-81; Yu 2009). 중화질서의 동남아에 대한 반사적 영향으로서 중국중심적 ‘조공무역체제’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는 동남아 각지 중심왕국의 소조공체제가 운용되는 것이다(Hamashita 1997; 濱下武志 1998: 33-38).

그 대표적 사례는 중화질서에서 파생하는 동아시아 해상안보의 ‘지역적 공공재’에 편승하여 태국에서 중국 남부지역을 거쳐 일본으로 중계되는 광역적 교역권과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동부항로’ 및 ‘서부항로’와 연계되는 동남아 반도권 및 군도권의 각종 국지적 교역권이다(濱下武志 1998: 33-38; Ishii 1998). 그와 같은 중화질서에서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등 동남아 각지의 중심왕국은 각기 자국중심적 소조공체제를 통하여 국지적 소지역질서를 관리한다. 각 중심왕국의 경우 중화질서에 대한 편입을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각종 경쟁세력의 정치적 도전에 대응하여 왕권의 권위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각종 주변세력 및 중화제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자국의 안보를 강구하는 정치군사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서부 및 북부 지역의 안보문제에서 자유로운 몽골의 원대에 이르러 급증하는 반면, 몽골 때문에 서북지역의 안보문제에 집착하는 명대와 서북지역의 영토편입에 집중하는 청대에는 현저하게 약화된다. 그러나 동남아 각국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중국의 왕조교체는 근본적 차별성을 수반하지 않는다(Stuart-Fox 2003: 66-69). 예컨대 원대에 군사적 위협을 경험한 태국의 경우, 19세기 후반 중화질서가 해체되는 국면에서도 조공의 중단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한다(Wyatt 1984: 48-49; 小泉順子 2009).⁶⁾ 중국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6) 조선의 임진왜란(1592) 당시 명조에 파병 의사를 표명하는 태국의 경우 자국의 무역에 긴요한 동아시아의 해상안보에 대한 일본 ‘왜구’의 도전에 대응하는 한편 중화질

다양한 베트남과 미얀마의 경우, 중국의 왕조교체라는 ‘변수’와 무관하게 중국의 안보위협은 항상적으로 전제되는 ‘상수’이다. 따라서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의 군사적 침략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저항에 일단 성공하면 바로 조공을 재개하는 이중전략을 통하여 중화질서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Wyatt 1984: 49; 余定邦 2000: 162-64; Stuart-Fox 2003: 46; Inoguchi 2006).

대내적으로 동남아의 각 중심왕국은 내부세력의 경쟁과 주변세력의 도전에 대응하여 왕권의 권위와 왕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질서를 활용한다. 내부세력에 대해서는 권력투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며, 주변세력에 대해서는 중화질서와 유사한 소지역질서를 도모한다. 예컨대 중화질서에 가장 긴밀하게 편입되는 동남아 국가로서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의례와는 달리 대내적으로 ‘황제’를 자칭하면서 라오스나 캄보디아에 산재하는 각종 주변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자국중심적 소지역질서를 구축한다(Stuart-Fox 2003: 46). 중화질서에 편입되는 동남아 각지 중심왕국들이 자국의 주변세력에 강제하는 조공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조공에 비하여 더욱 강압적이고 수탈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그 점에 있어서 태국(Ayutthaya, Chakri), 미얀마(Konbaung), 수마트라(Srivijaya), 자바(Majapahit), 브르네오(Brunei) 등지의 중심왕국들은 모두 근본적 유사성을 공유한다(Wyatt 1984: 56-58, 157-61; Munoz 2006: 118-22, 176-78, 182-84, 196-98, 280-81; Yu 2009).

중화질서는 시간적·공간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노정되는 수탈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중화제국의 경제적 자급능력 때문에 조공 자체는 의례적 수준에 국한되며, 중화질서의 경제사회적 기능은 조공책봉체제로부터 파생하는 각종 관방무역 및 민간무역을

서의 위계구조에서 자국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미얀마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한 것으로 추정된다(Wyatt 1984, 55-56).

통하여 수행된다(Sarasin 1977; 濱下武志 1998; Ishii 1998). 그러나 동남아 각지의 중심왕국은 자급능력의 한계 때문에 소지역질서의 조공을 주변세력의 경제적·군사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동원한다. 따라서 동남아 각지에서 ‘신민의 납세’가 아니라 ‘신하의 조공’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왕국을 관리하기 위한 국지적 소지역질서를 떠받치는 조공체제는 일종의 ‘생산양식’으로 기능한다(Stuart-Fox 2003: 33-34). 그와 같이 동남아 각지의 중심왕국은 중화질서에 대한 편입에서 파생하는 정치군사적·경제사회적 수익은 최대화하는 반면 그것이 수반하는 다양한 비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을 모색하는 것이다.⁷⁾

중화질서에 대한 동남아 각지 중심왕국의 수용적 태도는 중화제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사회적, 문화이념적 수요의 충족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동부 및 남부의 안보위협이 약화됨에 따라 서부 및 북부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된다. 경제사회적 차원에서 화남지역의 자연재해와 식량부족 등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됨으로써 사회갈등과 정치혼란에 대응하는 국가능력이 보장된다. 문화이념적 차원에서 중화질서의 의례적 형식에 대한 동남아 각지의 수용은 조공제도의 절정으로 평가되는 명대의 홍무제와 영락제, 청대의 강희제(康熙帝, 1662-1722)와 건륭제(乾隆帝, 1736-1795) 시기가 실증하는 바와 같이 왕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왕권의 실효성을 제고한다(何芳川 1998; Stuart-Fox 2003: 93-99, 105-141; 李雲泉 2004: 314-22). 그와 같이 중국의 물질적·관념적 조건이 동남아 각국의 물질적·관념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는 역사과정에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과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영향이

7) 그러나 중국학계에서 베트남의 경우 명조(明朝)의 무력정복에 대한 항쟁과 청조(清朝)의 ‘화이변태(華夷變態)’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독립성’과 ‘창조성’은 철저히 외면된다(于向東 2005, 156).

모두 다각적으로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Ⅲ. 식민시대와 민족주의

동남아 각국은 서구제국의 식민주의로부터 경제적 ‘이중구조(dual society)’와 종족적 ‘다중구조(plural society)’가 중첩하는 역사적 유산을 상속한다(King 1996). 식민시대를 통하여 중국인의 대량 이주에 따라 형성되는 동남아 각지의 화교사회는 그러한 ‘이중구조’와 ‘다중구조’에서 모두 요구되는 전략적 매개역할을 수행한다. 그에 따라 청일전쟁(1894-1895) 이후 급속하게 부상하는 중국의 근대적 민족주의는 동남아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주동적으로든 반사적으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변법자강(變法自強, 1898)을 시도하는 강유위(康有爲)와 양계초(梁啓超)의 보수적 민족주의, 신해혁명(辛亥革命, 1911)을 주도하는 손문(孫文)의 공화적 민족주의, 공산당(共產黨)의 급진적 민족주의, 중일전쟁(中日戰爭, 1937-1945) 이후 국공합작(國共合作)의 통합적 민족주의 등으로 발전한다. 그러한 중국 민족주의의 동남아에 대한 영향은 동남아 각지 화교사회를 통하여 현지 토착사회에 파급된다.

1. 주동적 영향

19세기 초의 산업혁명 이후 제국주의 식민지배의 기능적 요구에 따라 토착사회의 전통적 농업부문과 ‘서양사회’의 근대적 상업부문을 매개하기 위한 광산, 플랜테이션, 수공업,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 부문의 노동력으로서 기능하는 중국인의 대량이주에 따라 동남아 각지의 화교사회가 급속하게 성장한다. 그 결과 19세기 말의 청조

종반에 이르면 서구제국주의를 모방하는 ‘화교식민주의’ 시각까지 출현한다. 동남아 각지 중국인 계약노동의 참상을 부각하던 종전의 소극적 시각을 탈피하여 동남아 각지의 식민경제에 대한 화교사회의 필수적 역할이 강조되는 적극적 시각을 제시하는 양계초의 ‘화교식민론’에 의하면 동남아 각지 화교사회는 서구의 정부주도적 식민주의와 대조되는 중국의 민간주도적 식민주의를 대표한다. 동남아의 많은 국가는 “그 인민이 대부분 중국민족의 후예이므로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당연히 중국민족의 식민지”라는 것이다(李安山 2002: 1000).

화교사회의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까지 화교사회의 귀속의식은 근대적 민족의식이 아니라 혈연, 지연, 방언에 따른 전통적 방파(幫派)의식 수준에서 정체된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 변법자강(1898), 신해혁명(1911), 5.4운동(1919), 중일전쟁(1937) 등 중국의 급격한 정치변동이 동남아 화교사회의 민족주의를 추동한다. 변법자강의 실패 이후 강유위와 양계초의 유신회(維新會), 신해혁명 전후 손문의 동맹회(同盟會), 중일전쟁 전후 국민당 및 공산당의 산하조직 등이 동남아 각지 화교사회에 경쟁적으로 침투함에 따라 화교사회의 전통적 방파의식이 근대적 민족주의로 발전한다(Steinberg 1971: 244-45; Kratoska and Batson 1992: 276-80; 黃枝連 1992: 292; 박사명 2006: 316-26). 그러나 동남아 각지 화교사회는 내부적으로 여전히 소수의 중국 귀속적 민족의식, 다수의 화교 중심적 집단적의식, 소수의 현지 지향적 동화의식 등 대체로 세 경향으로 분화된다(Wang 1992: 44-47, 253-54).

서구세력을 제패한 러일전쟁(1904)의 영향을 희석하는 일본과 서구열강의 유착에 따라 동남아의 반식민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급증한다(Kratoska and Batson 1992: 252-53). 중국의 경우 서구교육을 통하여 배출되는 근대적 지식계층은 화이질서(華

夷秩序)의 중화제국을 탈피하여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코페르니쿠스적(Copernican) 전환’을 단행한다(劉禾 2009). 그 두 전형적 사례는 서구적 민족주의의 심대한 영향을 대변하는바, 동남아 및 동북아 각지의 민족주의는 그 양극 사이의 다양한 지점에 위치한다. 화교학교, 화교신문, 화교단체 등 3대 중추조직을 통하여 확산되는 동남아 각지 화교사회의 민족주의는 동남아 각지 토착사회의 민족주의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 전개되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분열에 따라 동남아 화교사회의 민족주의도 보수적 민족주의와 급진적 민족주의로 분열되고, 후자는 다시 1949년 중국혁명에 따라 급속하게 사회주의로 경사된다.

변법자강(1898)과 신해혁명(1911)의 영향은 화교사회를 통하여 동남아 토착사회에 과급된다(SarDesai 1997: 148; 余定邦·陳樹森 2007: 235-48). 강유위와 양계초는 베트남의 민족주의세력에 입헌군주국을 제안한다(Woodside 1976: 43-59; 王介南 2004: 385-86). 베트남 민족주의의 선구 판 주 쩐(潘周楨, Phan Chu Trinh) 및 판 보이 찌우(潘佩珠, Phan Boi Chau)는 강유위와 양계초의 영향에 따라 1904년 창립한 베트남유신회(越南維新會)를 신해혁명 직후 1912년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베트남광복회(越南光復會)로 개편하고, 1924년 중국의 국공합작(國共合作) 이후 1927년 베트남국민당(VNQDD)으로 재편한다(Woodside 1976: 59-67; 유인선 2002: 317-31; 王介南 2004: 385-88).⁸⁾ 인도네시아국민당(PNI, 1927)의 지도자 수카르노(Sukarno)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정의, 인도주의, 일신종교 등 건국의 ‘5대원칙(Panca Sila)’을 ‘5민주의’라 자칭하며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등 ‘삼민주의’를 창도한 손문의 심층

8) 베트남의 급진적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중국의 영향은 지대하며, 러시아혁명과 맑스 레닌주의의 영향은 대부분 중국을 통하여 유입되고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1925년)나 인도차이나공산당(1930년) 등 사회주의적 정치조직은 모두 프랑스 식민당국의 탄압을 피하여 중국에서 창립된다(Ho C. 2007: 192).

적 영향을 증언한다(Liu 1997; Legge 2003: 209-11; 王介南 2004: 388-89).

2. 반사적 영향

동남아 각지에서 전통시대의 토착왕국과 식민시대의 서구제국은 화교상인(華商)과 화교노동(華工)의 다양한 능력을 그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Golay et al. 1969: 291). 그러나 식민시대의 종반에 이르면 동남아 각지 화교사회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결속이 토착사회의 반사적 민족주의를 추동하게 된다. 그에 따라 서양계는 물론 중국계와 인도계 등 식민주의에 기생하는 각종 외래민족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현실적 수용을 거부하는 동남아 각지 토착사회의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는 중국계의 압도적 위상 때문에 화교사회를 집중적으로 겨냥한다(Steinberg 1971: 239-45). 1930년대 세계적 경제공황과 동남아 식민경제의 파탄은 각지에서 그러한 종족적 민족주의를 확산한다(Kratoska and Batson 1992: 290-303). 그 결과 국민경제에 대한 토착사회의 통제를 요구하는 경제적 민족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남아 각지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을 풍미한다(Golay et al. 1969).

예컨대 태국의 경우 서양세력의 위협과 1911년 신해혁명 이후 화교사회 민족주의의 위협에 대응하여 ‘국왕, 민족, 종교’가 공식적 국시로 선양되고, ‘시암인을 위한 시암(Siam for Siamese)’이 대중적 구호로 전파된다. 1930년대에 이르면 불교를 적극적으로 선양하는 문화적 민족주의가 경제적 민족주의 및 정치적 군사주의와 긴밀하게 결합하게 된다(Kratoska 1992: 294-99). 말레이시아의 경우 1930년대 후반 화교사회의 항일운동과 노동운동에 따라 증대하는 중국 민족주의의 위협에 대비하여 말레이계의 각종 민족주의적 정치조직

이 출현한다(Kratoska 1992: 302-303). 탈식민화 이후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동남아 각국은 경제적 이중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발전과 종족적 ‘다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통합의 역사적 과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전통시대에서 유래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와 식민시대에서 기인하는 영토적 민족주의의 근본적 갈등이 국가형성의 정치과정을 끊임없이 제약한다.

동남아 각지에서 자유방임적 식민경제는 환금작물 등 일차산품의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적 종속구조를 심화함으로써 급속한 산업화를 저해하고, 화교사회를 비롯한 외래민족의 역할에 의존하는 대내적 이중구조를 심화함으로써 경제구조의 진정한 토착화(indigenization) 또는 민족화(nationalization)를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 전역에 걸쳐 새로운 국민국가의 경제정책은 효과적 산업화와 민족화를 위한 국가개입의 확대와 민족통제의 강화를 추구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전후에 부상하는 각종 정치세력이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거의 보편적으로 ‘강성국가(strong state)’와 ‘민족경제(national economy)’를 공약한다(Golay et al. 1969: 1-19).⁹⁾ 그 결과 동남아에서 정치적 탈식민화 이후 경제적 탈식민화의 국가전략이 그 범위와 속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편적으로 식민경제의 유기적 일부인 화교경제에 대한 통제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식민화를 모면하는 태국이나 1935년 ‘자치령’으로 전환되는 필리핀은 모두 화교사회의 현지화 수준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장기적 식민화를 경험하는 동남아의 다른 국가보다 종족적 민족주의의 급진화 가능성이 가장 낮았던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 1938년 태국 경제장관은 ‘타이화(Thai-fication)’ 정책에 관하여 “이것은 자유무역인가 사회주의인가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것은 타이주의(Thai-ism)이다”고 선언한다(Golay et al. 1969: 299).

하고 양국 모두 화교경제의 민족화가 식민시대의 종반인 1930년대에 시도된다. 1932년 ‘민주혁명’ 이후 ‘타이화(Thai-fication)’ 정책과 1935년 ‘자치령’ 이후 ‘필리핀화(Filipinization)’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태국의 경우 경제의 민족화를 위하여 교육, 이민, 상업, 무역, 가공, 금융, 고용 등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 통제가 다각적으로 강화된다(Golay et al. 1969: 289-320). 필리핀의 경우 상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화교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920년대의 각종 조치에 추가하여 1939년 잡화상에 대한 영업허가제도와 1940년 공공시장에 대한 필리핀화법이 추진된다(박사명 2006: 317-18).¹⁰⁾

동남아 각지 화교사회에 대한 동남아 각지 토착사회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탈식민화에 따른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된다. 인도네시아의 1950년대 수입상 민족화정책과 1960년대 후반 군사정권의 화인사회 억압정책,¹¹⁾ 말레이시아의 1970년대 신경제 정책(NEP: New Economic Policy) 등 동남아 각국의 민족주의적 정책은 모두 화교사회의 현상유지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그 결과 중국 귀속적 ‘뿌리찾기(落葉歸根)’에 집착하던 종전의 화교사회는 점차 현지 지향적 ‘뿌리뽀기(落地生根)’를 추구하는 화인사회로 전환된다. 1970년대 후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사회주의권의 급진적 경제정책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각국의 화인사회에 더욱 심각한 충격을 제공한다. 탈식민화 이후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을 막론하고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각국 토착사회의 민족주의는 1949년 중국혁명 이후 공산정권의 시각에서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던 것이다.

10) 그 결과 1935년부터 1939년까지 전체 소매상 가운데 토착인이 15-20 퍼센트에서 37 퍼센트로 증가한다(박사명 2006: 318).

11) 1939년 식민지 인도네시아의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추정에서 1인당 평균소득의 민족별 비율은 유럽인, 중국인, 토착인이 61: 18: 1로 나타난다(Golay et al. 1969: 117).

1954년 중국은 인도 및 미얀마와 합의하는 ‘평화공존 5원칙’을 통하여 주권·영토존중,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호혜평등, 평화공존 등을 천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전통적 중화질서와 대조적인 서구사회의 근대적 주권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 그것은 식민지·반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의 “독립과 주권에 관한 단호한 결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표현인 것이다(Shao 1979: 32). 그러한 원칙이 국제적으로 다시 확인되는 1955년 반둥(Bandung) 아시아·아프리카회의는 동남아 각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시각을 과시하는 효과적 무대를 제공한다(黃枝連 1992: 218-20; Stuart-Fox 2003: 169-75). 1954년까지도 화교의 이중국적을 보장하는 대만정부와 유사한 화교정책을 추구하는 중국정부는 1955년 인도네시아와의 조약을 통하여 단일국적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동남아 각국의 화교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표명한다. 그에 따라 동남아 각국의 화교사회는 화인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하는바, 동남아 각국의 민족주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다(黃枝連 1992: 220-25).

IV. 냉전시대와 사회주의

동남아에 있어서 냉전의 기원에 대하여 소련과 중국 등 외부세력의 전략 및 동남아의 타율성을 강조하는 정통주의 시각과 내부세력의 갈등 및 동남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수정주의 시각이 대립한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공개되는 최신 자료에 대한 분석은 자율성과 타율성을 넘어 내인과 외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동남아 각국의 공산당은 완전히 자율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타율적이지도 않은 전향적(proactive) 행위주체로서 급변하는 국제

공산주의 노선과 상호작용한다. 그러한 상호작용은 1948년 이후 동남아 각국 공산당의 폭력노선이 강화되고 비공산세력 및 민주 정치에 대한 협력노선이 약화되는 지역적 유사성과 아울러 각국 공산당 혁명노선의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관건이다(Hack and Wade 2009: 441).

예컨대 1948년 이후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의 거의 모든 공산당은 연합전선, 노동조합, 합법정치 등에 대한 강조를 철회하고 무장투쟁에 착수한다. 그러한 변화는 바로 외부세력의 이념적·물질적 지원을 기대하는 내부세력의 전략적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다.

1. 주동적 영향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되는 자본주의진영과 공산주의진영의 이념적 양극화로 인하여 동아시아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의 분단이 핵심적 고리로 기능하는 지역 분단체제가 부상한다. 그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49년 중국대륙을 석권하는 중국공산당의 개선이다. ‘세계혁명’의 본부 소련에 의존하는 ‘동방혁명’의 지부로서 중국은 동남아에 대한 ‘혁명후방’을 자임한다(Zhai 2000: 20-24; Chen 2001: 44-48). 중국혁명의 성공에 따라 중국에 인접한 동남아는 세계적 냉전의 양극적 긴장이 군사적 폭력으로 배출되는 지역적 열전의 전장으로 전환된다. 동북아의 한반도와 동남아의 베트남에서 거의 동시에 전개되는 하나의 ‘동아시아전쟁’이 일단 정전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동아시아의 정치지형은 1954년 미국이 주도하는 동남아조약기구(SEATO: 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의 반공산주의 진영과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반식민주의 진영

으로 양분된다.

동아시아 지역분단의 새로운 정치지형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탈식민화와 국가형성의 정치과정에서 동남아 각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전략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사회주의진영에 가담하게 되는 인도차이나 3국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 개입과 자본주의진영에 잔류하게 되는 다른 국가에 대한 제한적 지원으로 구분된다. 베트남의 경우 1950년부터 1954년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승전까지 중국은 베트남의 프랑스에 대한 투쟁에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한다(Zhai 2000: 20; Chen 2001: 123-38; Ho C. 2007: 191-93).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에 대한 전쟁에서 중국은 방공, 공병, 수송, 병참 등 연인원 32만 이상, 최고 1967년 17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1950년부터 1978년까지 육군, 해군, 공군 등 200만 이상 병력의 무장이 가능한 무기와 탄약을 포함하여 200억 달러 이상의 군수물자를 제공한다(Chen 2001: 221-29; 唐希中 外 2003: 242).

베트남 등 동남아 사회주의권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1975년 통일 이전 베트남 북부지역에서 전개되는 경제체제의 사회주의적 재편과정에서 실증된다. 농업개혁은 중국개혁의 선례와 중국고문의 지도에 의존하여 시행된다(Vo 1990: 2). 그것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른 소규모의 자영화, 집단소유 원칙에 따른 중규모의 집단화,全民소유(全民所有) 원칙에 따른 대규모의 국유화 등 세 단계로 추진된다(Vo 1990: 7-8). 그러한 농업개혁은 베트남의 3단계全民소유와 중국의 4단계 인민공사를 제외하면 중국의 농업개혁과 대단히 유사하다. 그 결과 베트남은 중국과 유사하게 농민의 생산의욕 결핍으로 인한 농업생산의 만성적 위기에 직면한다(Vo 1990: 17-26).¹²⁾

12) 농가소득에 대한 기여에서 총경지면적의 5%에 불과한 자영농지가 1965년 51.8%, 1975년 54.3%에 이르는 반면 총경지면적의 95%에 달하는 집단농장은 각각 39.2%

그러나 베트남이 농업개혁의 3단계에서 집단화를 넘어 국유화를 단행하는 한편 중국식 인민공사 단계를 회피하는 것은 베트남의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특수성 때문이지만,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일정한 자율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1960년대 후반 중소분쟁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베트남의 미국에 대한 투쟁에 대하여 소련과 함께 적극적 지원을 계속한다. 더욱이 대내적으로 고조되는 문화혁명이 대외적으로 ‘혁명수출’을 고무함으로써 동남아 각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무장투쟁이 강화된다(Van der Kroef 1980; Roy 1998). 그러나 사회주의 베트남에 대한 전면적 지원에 비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혁명투쟁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 국한된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의 사회주의 혁명투쟁은 기본적으로 중국혁명의 이념과 전략을 추종하지만, 모두 자국의 정치적 세력 균형에 대한 현상타파에는 실패한다. 그것은 중국의 제한적 지원에도 기인하지만, 더욱 중요한 원인은 각국의 현실과 무관하게 중국모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교조주의적 성향과 국가에 따라 반식민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대중적 호소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혁명운동의 화교중심적 조직이다(Gurtov 1971; Jackson 1989; Marks 1994; Stuart-Fox 2003: 144-45; Mortimer 2006; Sison 2009).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상호관계는 전자의 일방적 주도과 후자의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지킬(Jekyll)과 하이드(Hide)의 관계’와도 유사한 상호작용의 이중적 관계이다(Duiker 1995: 166). 그러한 상호작용은 비록 비대칭적인 구조적 조건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하게 대칭적인 역동성을 과시할 수도 있다(Womack 2006). 동남아 각국은 세계적 냉전체제라는 ‘지배적 체계’에 구속되는 ‘종속적 체계’를 구성함

및 34.6%에 그친다(Vo 1990: 17).

에도 불구하고 그 대외적 행위는 미국, 소련, 중국 등이 주도하는 국제정치의 종속변수를 넘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독립변수 또는 매개변수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Gurtov 1971: 3). 냉전시대는 양극체제의 구조적 역학으로 인하여 동남아 각국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영향의 가능성이 최대화되는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각국 사회주의 혁명투쟁에 대한 중국의 주동적 영향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제약에 직면하는 것이다.

2. 반사적 영향

1949년 중국혁명은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으로 양분되는 동아시아 지역분단체제의 부상을 추동하고, 1950년대 한반도와 베트남에서 미국과 소련이 주재하는 양대 진영의 지역적 열전은 동남아 전역에 대한 ‘중국위협’의 ‘도미노(domino)’를 초래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분단체제의 고착을 초래한다. 1960년대에 이르러 동아시아의 지역적 열전은 심화되는 중소분쟁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쟁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그와 거의 동시에 전개되는 중국의 문화혁명에서 난무하는 ‘혁명수출’의 정치적 수사는 동남아 전역에 대한 ‘중국위협론’의 확산을 부추긴다. 그러한 지역적 정치과정에서 동남아 각국의 탈식민화 이후 국가형성이 진전된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자본주의권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국가형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사회주의권은 1970년대 베트남전쟁 이후 국가형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그러한 냉전시대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반사적 영향이 급속하게 확대된다.

탈식민화 이후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종족적 '다중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국민통합은 그 정치적 기초로서 국가기구의 확충을 요구한

다. 동남아 각국의 국가형성은 이념적 양극체제라는 냉전시대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전개된다. 중국혁명,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보다는 국가안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안보국가(security state)’의 출현을 촉진한다(Hogan 1998; Chee 1991).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공산주의 ‘도미노’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여 국가기구에서 군사조직의 위상이 강화된다. 국가자원이 사회복지에 우선하는 국방예산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치이념이 민주주의에 우선하는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제시된다.¹³⁾ 그와 같은 기형적 ‘안보국가’는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에서도 제국주의의 위협을 명분으로 강화되는바,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의 ‘적대적 상호의존’을 실증한다.

국민국가의 경제적 기초로서 종속적 식민경제를 자립적 국민경제로 전환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은 동남아 각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 국가역할이 강화되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등장을 추동한다(Stubbs 1999; Woo-Cumings 1999: 21-24; Doner et al. 2005; Vu 2007; Stubbs 2009). 그 점에 있어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와 조응하는 ‘안보국가’의 반공독재와 ‘발전국가’의 개발독재는 근본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중국혁명의 반사적 영향을 대변한다. 그러한 정치변동은 1950년대 태국의 짜릿(Sarit) 정권,¹⁴⁾ 1960년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Suharto) 정권 및 싱가포르의 리콴유(Lee Kuan

13) 식민시대에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대응하여 영국이 제정하는 국가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이 혁명운동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아직까지 유지되는 현실은 그 상징적 사례이다.

14) “1932년 절대군주의 몰락 이후 태국의 정치적 역할을 일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는 ‘동방의 혁명’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다. 짜릿(Sarit) 군사정권의 1960년대 ‘발전의 연대’뿐만 아니라 1970년대 중반 (학생봉기에 의한 군사정권의 타도 이후)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개혁 시도까지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도차이나와 중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적 대응 또는 선제적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Kershaw 1982: 307).

Yew) 정권, 1970년대 필리핀의 마르코스(Marcos) 정권 등으로 표현된다. 1980년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정권은 공산주의의 위협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현실에서 화교사회에 대응하는 말레이계의 종족적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등장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역할을 강화한다(Jomo 1997).

한편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수출’은 동남아에서 다자주의적 지역 협력을 가속한다. 1967년 베트남전쟁의 외중에서 탄생하는 ASEAN은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군도권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동남아 반도권의 ‘중국위협’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다. 중국의 ‘혁명수출’과 동남아의 베트남전쟁이 착종하는 위기적 국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의 지역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이다(Lee 2000: 329-30, 573-75; Severino 2006: 2-3, 274-75). 그 점에 있어서 ASEAN은 주로 중국에 대한 동남아 각국의 양자적 세력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대안이다. ASEAN의 창립선언은 ‘지역적 연대 및 협력’을 ‘지역의 평화, 진보, 번영’을 위한 관건으로 제시하고, UN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 원칙을 외부의 개입에 대응하여 역내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ASEAN의 진전은 기본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반사적 영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의 분쟁이 1970년대 중국과 미국의 화해를 촉진함에 따라 1970년대 중반에는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국가의 관계가 정상화된다. 1980년대에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에 대응하여 중국과 ASEAN의 협력이 강화되고(Lee 2000: 333-40),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개혁이 가속된다. 1990년 전후 냉전체제의 해체와 사회주의의 파탄이라는 세계적 정치변동에 대응하여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비롯한 모든 동남아 국가에 대

한 정상적 관계를 회복한다. 1978년의 개혁개방 직전 덩소평(鄧小平)의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방은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영향을 실증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특히 덩소평은 싱가포르를 ‘전쟁과 혁명’을 넘어 ‘평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중국의 모델로까지 설정된다(鄧小平 1993: 375-80).¹⁵⁾ 그에 따라 중국에 대한 화인자본의 투자와 캄보디아에 관한 ASEAN 협력의 전제로서 동남아 각국 공산당의 무장투쟁에 대한 중국의 이념적·물질적 지원이 전면적으로 중단된다(Lee 2000: 595-608). 이와 같이 중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동남아의 대응이 다시 중국의 개혁개방에 다각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V. 개방시대와 자본주의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 이후 특히 동부유럽 및 소련의 사회주의 붕괴 이후 부상하는 자국의 경제체제를 각각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지향적 시장경제’로 규정한다. 지배계급의 성격에 따라 ‘자본주의적 국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국가자본주의’를 분류하는 레닌(Lenin)의 이론에 따라 모택동(毛澤東)은 중국혁명 이후 공산정권 초기의 경제체제를 “대부분 인민정부에 의하여 통제되고 각종 사회주의 국유경제와 연계되는 자본주의경제”로서 그 목적이 “자본가의 이윤 창출이 아니라 인민과 국가의 수요 충족”이므로 ‘사회주의적 국가자본주의’라 규정한 바 있다(Mao 1977: 101; Vo 1990: 26). 중국과 동남아 사회주의권의 경제개혁은 계획경제 및 공유부문의 과감한 축소와 시장경제 및 사유부문의 급속한 확대를 요

15) 예컨대, “광둥(廣東)은 20년 안에 아시아의 ‘작은 네 마리 용들’을 따라잡아야 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와 사회기풍도 바로잡아야 한다. 싱가포르의 사회질서가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관리가 엄정하다. 우리는 그 경험을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잘 관리해야 한다”(鄧小平 1993: 378-79).

약된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체제는 자유자본주의는 아니라도 ‘중국 특색 자본주의’와 ‘베트남특색 자본주의’, 즉 국가자본주의로 규정 될 수 있을 것이다(Bremmer 2009).

1. 주동적 영향

1992년 이후 중국은 “모든 생산요소의 전면적 상품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하여 공유제도와 계획경제의 양측으로 구성되는 전통적 사회주의를 근본적으로 이탈한다(馬洪 1993). 그러한 경제체제의 전환에 따라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중국특색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중국의 국가적 정체성은 급진주의적 ‘혁명국가’에서 실용주의적 ‘발전국가’로 전환된다. 그와 같이 급속한 체제전환을 추동하는 덩소평의 개혁개방은 동남아의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에 모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베트남은 1990년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전에는 경제개혁의 범위와 속도에서 중국을 능가하기도 한다.¹⁶⁾ 그러나 1990년 전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전면적 파국에 직면하여 동아시아 사회주의권의 전략적 선택은 강대국 중국의 과감한 현상타파와 약소국 베트남의 신중한 현상유지로 엇갈린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경제개혁의 범위와 속도는 베트남이 중국의 경험을 학습하는 양상으로 반전된다.¹⁷⁾

사실 1990년 전후만 하더라도 베트남은 개혁개방에 있어서 소련

16)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집단농장 해체과정과 1979년 이후 베트남의 집단농장 해체과정의 상호관계는 시기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모호하다. 1985년 소련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개혁개방에 후속하는 1986년 베트남 응우옌 반 린(Nguyen Van Linh)의 개혁개방 이후 농업개혁의 경우에도 중국 농업개혁과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다(Kerkvliet and Selden 1998).

17) 베트남의 한 학자는 베트남은 러시아 및 동구권의 급진적 경제개혁이 아닌 중국의 점진적 경제개혁의 성과를 학습하여 정치안정에 기초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한다고 공언한다(丁文恩 2005).

과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자부한다. “중국은 상응하는 정치개혁을 배제하는 경제개혁에 착수함으로써 천안문사태를 야기한다. 소련은 경제개혁을 배제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붕괴를 자초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1986년 이후 두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는바, 우리의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된다”(Schellhorn 1992: 241). 그러나 1991년 이후 베트남은 사회주의 권의 파국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훨씬 심각한 약소국으로서 경제개혁의 가속을 신중하게 유보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강대국 중국은 1992년 물품의 상품화에 국한되는 종전의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넘어 토지, 자본, 노동, 부동산, 기술, 정보 등 모든 생산요소의 전면적 상품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과감하게 선언한다(馬洪 1993).

그 결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마다 중국의 선도적 경험을 충실하게 학습해야 하게 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한 중국의 가입을 평가하는 한편 자국의 실정을 우려하는 베트남 정부의 견해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ASEAN 2001: 143-44).

베트남은 협소한 시장, 고임금과 고투자비용, 부족한 자원 등 때문에 외국 직접투자의 유인에 불리하다. 중국보다 지연된 WTO 가입으로 인하여 그러한 열세가 더욱 악화되고 중국보다 낙후될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베트남은 외국자본에 더욱 매력적으로 되기 위하여 경제적 상황과 제도적 체계를 더욱 개선하는 과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베트남은 WTO 가입협상에 관한 중국의 경험을 학습해야 한다.

동부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그 ‘혁명후방’으로서 소련의 개혁과 해체에 기인하는 바가 큰 반면,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의 생존은

그 ‘혁명후방’으로서 중국의 가속적 성장에 기인하는 바 크다. 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장기적 정치안정을 표방하는 중국의 ‘신권위주의’적 ‘발전국가’는 베트남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사실 동남아에서 사회주의적 이행이 주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모방한 것이라면, 그 자본주의적 개혁도 또한 주로 중국의 자본주의적 개혁을 학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1980년대 중국의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모방하여 1992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합을 지향하는 ‘다부문적 상품경제’를 공식적으로 헌법에 규정하며, 1990년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모방하여 ‘사회주의 지향적 시장경제’라는 대안이 모색된다(Hiebert 1993; Perkins 2001).

그와 같이 베트남은 저렴한 인력자원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외국 자본에 의한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한 유인으로 파악한다. 그러한 비교우위는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탈피하여 세계경제의 분업구조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급속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인식의 전환은 전통적 사회주의를 근본적으로 이탈하여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전면적으로 편입하는 경제체제의 역사적 전환을 촉진한다(Vo 1990, 215).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적 자유화는 지속된다. 2001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중국의 경우와 유사한 ‘사회주의 지향적 시장경제’와 ‘공유제 위주의 다양한 소유제’가 공식적으로 채택된다. 대외적으로도 베트남은 중국의 경험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2005년에 WTO 가입에 성공한다(Pham 2002; Nguyen 2004; 丁文恩, 2004; 郭大洛 2004).

2. 반사적 영향

중국의 개혁개방은 동남아 사회주의권에 주동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동남아 자본주의권에는 반사적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에 이르면서 동남아에 확산되는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다양한 대응을 초래한다(Yee and Storey 2002). 캄보디아 사태의 해결에 따라 1990년 전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등과의 수교 및 복교에 따라 동남아의 모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된다. 그러한 양자관계에 기초하여 중국은 1991년 ASEAN 외교장관회의, 1994년 ASEAN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1996년 ASEAN 각료회의, 1997년 ‘ASEAN+1’ 및 ‘ASEAN+3’ 정상회의, 1999년 동아시아 협력선언, 2002년 비전통안보 협력선언, 2002년 남중국해 행동수칙, 2003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등에 참여함으로써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도 양자주의를 넘어 단계적으로 다자주의에 접근한다(박사명 2006: 264-71).

그러나 동남아 각국의 중국에 대한 ‘대세영합(bandwagoning)’은 경제적 차원에 국한되며, 전략적 차원에서는 일정한 ‘세력균형(balancing)’을 위하여 중국에 대한 연계(engagement)와 동시에 미국에 의한 보험(hedging)이 모색된다(Roy 2005). 그 점에 있어서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중심과 주변’ 또는 ‘패권과 종속’의 양분법적 접근이나 ‘균세와 합세’ 또는 ‘적대와 동맹’의 상투적 양분법을 거부한다(Acharya 2003: 23). 따라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반사적 영향은 경제적 차원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다. 1992년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협정은 중국시장에 대한 ASEAN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일 시장, 단일 생산기지를 지향한다. 중국 국가주석 강택민(江澤民)은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세계화의 필연성을 역설한다.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경제 발전의 필연적 추세로서 어떤 국가도 회피할 수 없고,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王逸舟 2000). 세계화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

접근시각은 2001년 WTO 가입과 2002년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CAFTA: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반영된다.

사실 2000년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제안은 동남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 상당한 충격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도전’과 ‘기회’ 가운데 ‘기회’가 더 주목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된다(ASEAN 2001; Wong and Zhang 2006).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제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서에 기초하는 ASEAN의 보고서는 국제적 비교우위, 경제적 효율성, 특수한 관계, 지역적 정체성 등에 관한 중국의 시각에 전면적으로 동의한다(ASEAN 2001: 31-32).

ASEAN과 중국 사이 무역장벽의 제거는 비용의 절감, 역내무역의 증대,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의 특화를 촉진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함으로써 양자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게 될 것이다 ... 자유무역협정은 ASEAN과 중국의 공동체의식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양자의 지리적 근접성, 장구한 역사적 연계성, 문화적 공통성 등은 상호협력을 증진하게 될 것이다. ASEAN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조성하는 공동체의식은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및 안정에 지대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종래 중국은 남중국해의 일부 군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관련 국가의 중국에 대한 양자주의적 비대칭성을 다자주의적 전략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동남아의 요구를 철저히 거부한다. 그러나 1997년 중국은 ASEAN 회의를 통하여 영합적(zero-sum) 갈등의 권력정치에 집착하는 냉전시대의 안보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합적(positive-sum) 협력의 ‘신뢰, 호혜, 평등, 조정’을 원칙으로 하는 ‘신안보관’을 제출함으로써 처음으로 다자주의적 접근에 대한 개방적 의지를 표명한다(王逸舟 2001; Medeiros and Fravel 2003). 물론 그와 같은 전략적 전환은 중국의 단기적 국가이익과 장기적 국가이익

에 대한 다각적 성찰의 결과이지만, 그러한 성찰의 결정적 계기는 동남아 각국의 강력한 연합전선으로 평가된다(Lee 1999: 333-40; Acharya 2003). 남중국해 군도의 영유권에 관한 갈등이 다시 부상하는 최근의 동향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전환적 국면에서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VI. 결론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역사적으로 전통시대, 식민시대, 냉전시대, 개방시대 등 크게 네 단계를 통하여 전개된다. 전통시대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중화주의를 중심으로 파급된다. 조공책 봉체제에 기초하는 중화질서는 동남아의 반도권과 군도권에 대하여 상당히 불균등한 영향을 미친다. 반도권은 문화이념적 영향도 두드러진 베트남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정치군사적, 경제사회적 영향이 부각되며, 군도권은 그러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동남아 각국은 중화질서에 편입하여 정치군사적 안보와 경제사회적 이익을 도모한다. 동남아 각지의 중심왕국은 중화질서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기 자국중심적 소지역질서를 관리한다.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의 사례와 같이 경우에 따라 중화질서에 대한 저항도 전개된다. 동남아의 중화질서 편입은 중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사회적, 문화이념적 수요의 충족에 기여한다. 중국의 위상이 가장 압도적이던 전통시대에 있어서도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주동적 영향과 반사적 영향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식민시대에 있어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바, 변법자강에 실패하는 강

유위와 양계초의 유신회, 신해혁명에 성공하는 손문의 동맹회와 국민당, 중일전쟁에 대처하는 국공합작 등 세 단계를 통하여 동남아의 반식민주의적 민족주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그와 같은 중국 민족주의의 주동적 영향은 주로 동남아 각지의 화교사회를 통하여 토착사회에 확산된다. 그러나 화교사회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결속에 대한 반사적 영향으로서 동남아 토착사회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심화된다. 따라서 식민시대 종반에 화교경제에 대한 각종 통제가 강화되는 태국과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탈식민화 이후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화교사회에 대한 각종 통제가 시도된다. 한편 동남아 각국에서 강화되는 민족주의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바, 주권국가체제를 수용하는 ‘평화공존 5원칙’과 동남아 각국 화교사회의 현지 귀속적 정체의식을 촉진하는 단일국적정책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에는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조건이 소련보다 중국과 더 유사한 동남아 각국에서 중국모델이 수용됨에 따라 동남아 각국의 사회주의 혁명투쟁에 대한 중국의 주동적 영향이 강화된다.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의 혁명투쟁에 대한 전면적 지원이 확대되고, 태국 등 자본주의권의 혁명투쟁에 대한 제한적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분쟁과 문화혁명이 고조되는 1960년대의 급진적 환경은 동남아 각국 사회주의 혁명투쟁에 대한 중국의 이념적·물질적 지원을 고무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투쟁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동남아 각국의 다각적 대응을 촉진한다.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의 경우 투쟁의 성공이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반전되는 반면, 인도네시아 등 자본주의권의 경우 투쟁의 실패가 ‘중국위협론’으로 전이됨으로써 정치적 ‘안보국가’와 경제적 ‘발전국가’를 추동한다. 그로 인한 동남아 자본주의권의 경제발전은 다시 중국의 개혁개방에 기여한다.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개방시대에 이르면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로 분장되는 ‘중국특색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사회주의권에 대한 중국의 주동적 영향은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을 통한 체제전환의 경험을 학습하는 ‘후발이익’으로 구현된다. 중국적 사회주의의 이념적 명분과 급속한 경제성장의 현실적 성과가 그러한 효과를 담보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권에 대한 중국의 반사적 영향은 ‘중국위협론’이 ‘중국기회론’에 압도되는 ‘아이디어의 자유시장(free market of ideas)’을 통하여 실현된다.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대한 동남아의 전향적 수용에 따라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대한 기대가 확산된다. 1990년대 중반 지역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도전’을 넘어 그 ‘기회’를 부각하는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대응에서 중국은 ‘위협’을 넘어 ‘기회’로 부상한다. 남중국해 군도의 영유권에 대한 동남아의 다자주의적 접근을 일정하게 수용하는 중국의 전략적 전환은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영향을 실증한다.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자율성과 타율성에 관한 역사적 관심은 중국과 동남아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현실적 관심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전면적으로 자율적이거나 전면적으로 타율적인 동남아는 비현실적 가정에 불과하므로 그 양극을 포괄하는 광범한 스펙트럼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상대적 자율성의 다양한 범위와 수준에 주목하는 역동적 접근시각이 요구된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주동적 영향과 반사적 영향이 복잡하게 착중하는 역사적 경험은 동남아의 자율성과 타율성에 대한 양분법적 접근시각의 현실적 기반을 심각하게 교란한다. 중국과 동남아의 구조적 비대칭성은 객관적 조건에 불과하며, 상호관계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상호주관적 정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동적 영향과 반사적 영향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다.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동남아에 대한 중

국의 주동적 영향과 반사적 영향이 모두 시장경제에 기초하는 지역 통합으로 귀일하는 현상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전망에 대하여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함축한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실증하는 바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유럽의 ‘경성’ 지역주의와 달리 시장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연성’ 지역주의에서 시장의 역동성은 국가의 자율성을 다양하게 제약한다. 군사적 파괴수단에 기초하는 중화질서, 식민질서, 냉전질서 등 역사적 지역질서와 달리 경제적 생산수단에 기초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는 접근시각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시장통합이 가속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구조적 조건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심화되는 중국과 동남아의 유기적 상호의존은 양자의 상호관계를 ‘중심과 주변,’ ‘패권과 종속,’ ‘균세와 합세,’ ‘적대와 동맹’ 등으로 양분하는 정태적 접근시각을 거부한다.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자율성과 타율성은 구체적 사안의 근본적 성격과 현실적 조건에 따라 지극히 가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과 동남아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식민주의적 타율성과 민족주의적 자율성을 넘어 지역주의적 상호의존을 부각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에 전향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자율성, 타율성, 상호적 접근시각, 주동적 영향, 반사적 영향, 중화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참고문헌〉

- 박사명. 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서울: 이매진.
- 유인선. 1995. “베트남 전통사회와 유교화문제, 그리고 우리의 베트남사 연구.” 『동양사학연구』 50: 129-44.
- _____.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 전해중. 1986. 『한중관계사연구』. 서울: 일조각.
- Acharya, Amitav. 2003. "Seeking Security in the Dragon's Shadow." Working Paper Series, No. 44,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 Singapore.
- _____. 2004. "Will Asia's Past Be Its Future?" *International Security* 28(3): 149-64.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2001. *Forging Closer ASEAN-China Economic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Jakarta: ASEAN Secretariat.
- Benda, Harry J. 1965. "Decolonization in Indonesia: The Problem of Continuity and Change." *American Historical Review* 70(4): 1058-73.
- Bremmer, Ian. 2009. "State Capitalism Comes of Age." *Foreign Affairs* 88(3): 40-55.
- Chee, Stephen (ed.). 1991. *Leadership and Security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Chen Jian. 2001.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Doner, Richard F., Bryan K. Richie, and Dan Slater. 2005. "Systemic Vulnerability and the Origins of Developmental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9: 327-61.

- Duiker, William J. 1995. *Vietnam*. 2nd Ed. Boulder: Westview Press.
- Fairbank, John King (ed.).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ay, Frank H., Ralph Anspach, M. Ruth Pfanner and Eliezer B. Ayal. 1969. *Underdevelopment and Economic Nationalism in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urtov, Melvin. 1971. *China and Southeast Asia*. Lexington, Massachusetts: Heath Lexington Books.
- Hack, Karl and Geoff Wade. 2009. "The Origins of the Southeast Asian Cold War." *Journal of Southeast Asia Studies* 40(3): 441-48.
- Hamashita, Takeshi. 1997. "The Intra-Regional System in East Asia in Modern Times." In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 *Network Pow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iebert, Murray. 1993. "Dissenting Voice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ember 2.
- Ho Chi Minh. 2007. *Down with Colonialism!* London: Verso.
- Ho Khai Leong. 2007. "From 'Sino-Centricity' to 'Autonomous Narrative' in Southeast Asian Chinese Studies in China." In Saw Swee-Hock and John Wong (eds.), *Southeast Asian Studies in Chin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Hogan, Michael J. 1998. *A Cross of Ir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oguchi, Takashi. 2006. "China's Intervention in Vietnam and its Aftermath, 1786-1802." In I Yuan (ed.), *Rethinking New*

-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Taiwa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 Ishii, Yoneo. 1998. *The Junk Trade from Southeast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Jackson, Karl D. (ed.). 1989. *Cambodia 1975-197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hnson, Alastair Ian. 1995. *Cultural Re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mo, K. S. (ed.). 1997. *Southeast Asia's Misunderstood Miracle*. Boulder: Westview Press.
- Kang, David C. 2007. *China Ris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erkvliet, Benedict J. Tria and Mark Selden. 1998. "Agrarian Transformation in China and Vietnam." *China Journal* 40: 37-58.
- Kershaw, Roger. 1982. "Thailand between Democracy and Revolution." *International Affairs* 58(2): 307-14.
- Kratoska, Paul and Ben Batson. 1992. "Nationalism and Modern Reform." In Nicholas Tarling (ed.),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Vol.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Kuan Yew. 2000. *From Third World to First*.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Inc.
- Lee Lai To. 1999.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Dialogues*.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 Legge, J. D. 2003. *Sukarno*. Singapore: Archipelago Press.
- Liu Hong. 1997. "Constructing a China Metaphor."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8(1): 27-46.

Lysa, Hong. 1996. "History." *An Introduction to Southeast Asian Studies*. London: Tauris Academic Studies.

Mao Tse Tung. 1977. *Selected Works of Mao Tse Tung*.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Marks, Tom. 1994. *Making Revolution*. Bangkok: White Lotus.

Medeiros, Evan S. and M. Taylor Fravel. 2003.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82(6): 22-35.

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08. "2008 Opinion Poll on Japan in Six ASEAN Countries." May 1.

Mortimer, Rex. 2006. *Indonesian Communism Under Sukarno*. Jakarta: Equinox Publishing.

Munoz, Paul Michel. 2006. *Early Kingdoms of the Indonesian Archipelago and the Malay Peninsula*. Singapore: Editions Didier Millet.

Nguyen Tan Dung. 2004. "Economic Integration Tops State Agenda." *Viet Nam News*, July 8.

Perkins, Dwight H. 2001. "Industrial and Financial Policy in China and Vietnam." In Joseph E. Stiglitz and Shahid Yusuf (eds.), *Rethinking the East Asian Mirac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ham Gia Khiem. 2002. "Strengthen Cooperation, Promote Integration for the Future." *The Future of Asia 2002*. Tokyo: Nikkei Net Interactive.

Reonard, Jane Kate. 2009. "Extracts from Wei Yuan and China's Rediscovery of the Maritime World." In Geoff Wade (ed.), *China and Southeast Asia*. Vol. IV. London: Routledge.

- Roy, Denny. 1998. *China's Foreign Relations*. Lanham: Rowan & Littlefield.
- _____. 2005. "Southeast Asia and Chin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7(2): 305-22.
- Sarasin Viraphol. 1977. *Tribute and Profi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SarDesai, D. R. 1997. *Southeast Asia*. 4th Ed. Boulder: Westview Press.
- Schellhorn, Kai M. 1992.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Vietnam."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4(3): 231-43.
- Schwartz, Benjamin I. 1968. "The Chinese Perception of World Order." In John King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everino, Rodolfo C. 2006. *Southeast Asia in Search of an ASEAN Communit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hao, Kuo-kang. 1979. "Chou En-lai's Diplomatic Approach to Non-Aligned States in Asia, 1953-60." *China Quarterly* 78: 324-38.
- Sison, Jose Ma. 2009. *For Democracy and Socialism against Imperialist Globalization*. Philippines: Aklat ng Bayan, Inc.
- Smail, John J. 1961. "On the Possibility of an Autonomous History of Modern Southeast A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2: 72-102.
- Steinberg, David Joel. ed. 1971. *In Search of Southeast Asia*. New York: Praeger.
- Stuart-Fox, Martin. 2003. *A Short History of China and Southeast Asia*. Sydney: Allen & Unwin.

- Stubbs, Richard. 1999. "War and Economic Development." *Comparative Politics* 31(3): 337-55.
- _____. 2009. "What Ever Happened to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Pacific Review* 22(1): 1-22.
- Tran Dong Phuong. 2001. "Vietnam's National Study on the Possible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on Vietnam." *ASEAN, Forging Closer ASEAN-China Economic Relations*. Jakarta: ASEAN Secretariat.
- Van der Kroef, Justus M. 1980. *Communism in Southeast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Vo Nhan Tri. 1990.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Vu, Tuong. 2007. "State Formation and the Origins of Developmental States in South Korea and Indonesia."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41(4): 27-56.
- Wade, Geoff. 2006. "Ming Chinese Colonial Armies in Southeast Asia." In Karl Hack and Tobias Rettig (eds.), *Colonial Armies in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 Wang Gungwu. 1968. "Early Ming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 In John King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2. *Community and Nation*. St Leonards, Australia: Allen & Unwin.
- Whiting, Allen S. 1997. "ASEAN Eyes China." *Asian Survey* 37(4):.
- Womack, Brantly. 2006. *China and Vietna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ng, John and Yang Zhang. 2006. "China as a Catalyst for East

- Asian Economic Cooperation." In Lee Poh Ping, Tham Siew Yean and George T. Yu (eds.), *The Emerging East Asian Community*. Bangi, Malaysia: UKM.
- Woo-Cumings, Meredith (ed.).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oodside, Alexander B. 1976. *Community and Revolution in Modern Vietnam*.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Wyatt, David K. 1984. *Thailand*. Chiang Mai, Thailand: Silkworm Books.
- Yee, Herbert and Ian Storey. 2002. *The China Threat*. London: RoutledgeCurzon.
- Zhai, Qiang. 2000. *China and the Vietnam Wars, 1950-1975*.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郭大洛. 2004. “越南的社會主義市場經濟改革.” 『轉軌通信』, 3.
-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 第三卷. 北京: 新華出版社.
- 丁文恩 (Dinh Van An). 2004. “越南的社會主義定向市場經濟.” 『轉軌通信』, 2.
- _____. 2005. “越南的經濟改革與發展.” 『轉軌通信』, 2.
- 梁英明. 2008. “華僑華人學科建設與學術定位” 吳小安·吳杰偉 編. 『中國華僑華人研究』. 香港: 香港文匯出版社.
- 梁志明. 2007. “關於中國東南亞學研究的幾個問題” 『東南亞研究』, 2: 14-19, 49.
- 劉 禾. 2009. 『帝國的話語政治』. 楊立華 外 譯. 北京: 三聯書店.
- 李安山. 2002. “中國華僑華人研究的歷史與現狀概述.” 周南京 編. 『華僑華人百科全書』 總論卷.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 李雲泉. 2004. 『朝貢制度史論』. 北京: 新華出版社.
- 馬洪編. 1993. 『甚麼是社會主義市場經濟』.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 賽代斯 (Coedes). 2008. 『東南亞的印度化國家』. 蔡華·楊保筠 譯. 北京: 商務印書館.
- 孫衛國. 2007. 『大明旗號與小中華意識』. 北京: 商務印書館.
- 王逸舟. 2000. “市民社會與中國外交.” 『中國社會科學』, 3: 28-38, 203-04.
- _____. 2001. “中國與多邊外交.” 『世界經濟與政治』, 10: 4-8.
- 王介南. 2004. 『中外文化交流史』. 太原: 書海出版社.
- 余定邦. 2000. 『中緬關係史』.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 _____. 陳樹森. 2007. 『中泰關係史』. 北京: 中華書局.
- 于向東. 2005. “中國的越南學研究狀況及其思考.”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 6: 156-59.
- 趙汀陽. 2005. 『天下體系』.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 張曙光. 2006. “天下理論和世界制度.” 『中國書評』, 5.
- 張秀明. 2008. “近年國內華僑華人研究的趨勢與展望.” 吳小安·吳杰偉 編. 『中國華僑華人研究』. 香港: 香港文匯出版社.
- 庄國土. 2005. “略論朝貢制度的虛幻.” 『南洋問題研究』, 3: 1-9.
- 柯嵐安. 2008. “中國視野下的世界秩序.” 『世界經濟與政治』, 10: 49-56.
- 孔遠志·鄭一鈞. 2008. 『東南亞考察論鄭和』.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唐世平·張浩·曹筱陽. 2005. “中國的地域研究.” 『世界經濟與政治』, 11: 9-17.
- _____. 慕大鵬. 2008. “中國外交討論中的的‘中國中心主義’與‘美國中心主義’.” 『世界經濟與政治』, 12: 62-70.
- 唐希中·劉少華·陳本紅. 2003. 『中國與周邊國家關係』.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費正清. 2008. 『中國: 傳統與變遷』. 張沛·張源·顧思兼 譯. 長春: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 何芳川. 1998. “華夷秩序論.”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5(6): 30-45.
- _____. 2004. “世界歷史上的大清帝國.” 『史學理論研究』, 1: 22-34.
- 黃枝連. 1992. 『東南亞華族社會發展論』.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 小泉順子. 2009. “1880年代中葉におけるシャムの地域認識.” Paper Presented to the First KASEAS-CSEAS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June 19,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 濱下武志. 1998. 『近代中國の國際的契機』 3版.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11. 04. 07 투고; 2011. 05. 31 심사; 2011.06. 22 게재확정)

<Abstract>

Chinese Influence and Southeast Asian Response: An Interactive Approach

Park Sa-Myung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onstruct a basic framework of analysis about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on Southeast Asia through traditional Sinocentrism, anti-colonial nationalism, Cold War socialism and post-Cold War capitalism. As to the historical status of Southeast Asia vis-a-vis external forces such as India, China and the West, the colonial discourse tends to put excessive emphasis upon its dependence, and the post-colonial discourse upon its autonomy. However, this study elucidat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a dynamic perspective, focusing on their reciprocal interactions beyond the essentially static dichotomy of autonomy and dependence. Chinese influence on Southeast Asia can be divided into active and reactive one, with the former referring to direct and intended consequences and the latter to indirect and unintended consequences.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active and reactive influence, both China and Southeast Asia were fundamentally proactive actors. Thus, the autonomy or dependence of Southeast Asia is just a question of

relative one, with its actual extent and degree varying with specific spatial and temporal conditions.

Key Words: autonomy, dependence, interactive approach, active influence, reactive influence, Sinocentrism, nationalism, socialism, capitalism

